

부활절 다섯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5<sup>TH</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2년 5월1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 2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0 번 시편 3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Exodus) 1:15-2:10</b>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주와 함께 가리라”	찬양대
설 교 Korean Sermon	<b>“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God Was So Good to Them)</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45 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통일 34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과 일상의 분주함과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공효와 은혜와 간구하오니,  
더 이상 회개 없는 용서와,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예수님과 무관한 왜곡된 복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진실하고, 더욱 성결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3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개역개정 **출1:20**)

“So God was good to the midwives, and the people multiplied, and became very mighty.” (NASV **Exodus 1:2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5 (주일)	5/16 (월)	5/17 (화)	5/18 (수)	5/19 (목)	5/20 (금)	5/21 (토)
	민24	민25	민26	민27	민28	민29	민30
본문	시66,67	시68	시69	시70,71	시72	시73	시74
	사14 벧전2	사15 벧전3	사16 벧전4	사17,18 벧전5	사19,20 벧후1	사21 벧후2	사22 벧후3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18수 오후7:30)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나” (삿21:13-25)
토요 새벽기도회(5/21토 오전6:30)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 두어”(시81:1-13)

지난 주일(5/8)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1)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니라**”(출 1:1-14)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 출애굽기는 가장 먼저 접속사(그리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속선 상에 있다는 의미로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에 마지막 단어는 “애굽”을 뜻하는 “미쯔라임”인데, 여기에서 “미쯔라임(애굽)”의 어원은 “Hardship, Distress, Oppression”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억압과 고통”의 장소인 애굽에서, 그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암울한 죽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와서는 (곧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표현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던 약속으로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로부터 심한 학대와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도시) 건축에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성을 쌓고, 도시를 건축하며, 고대 문명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가인과 그의 후손들(참고, 창4장)이었듯이, 지금 애굽 왕 바로에 의해 자행된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던 가인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 필히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필히 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시도하는 (우리의) 모든 언행은 스스로 성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